

광주 남구, '한마음 치매극복·건강걷기' 개최

오늘 주월동 푸른길 공원 광장 건강증진 캠페인·홍보관 운영

광주 남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한마음 치매극복·건강 걷기를 진행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건강 걷기' 행사가 2일 오전 10시부터 주월동 푸른길 공원 빅스포 뒤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 150명과 현장 접수자를 포함해 약 300명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월동 빅스포 뒤 광장에서 출발해 푸른길 브릿지 반환점까지 1.5km 가량을 이동한 뒤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며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 실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건강 걷기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한마음 치매극복·건강 걷기 행

사장 주변에서 관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부스를 선보인다.

먼저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홍보 부스를 설치해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남구보건소도 홍보관 운영을 통해 금연과 정신건강, 결핵 및 에이즈 예방,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을 홍보하며 22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이밖에 홍보 부스 주변에서는 지역사

회 중심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운동상담실 운영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5월은 걷기를 비롯해 신체활동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라며 "22만 주민들께서 5월의 시작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에 나섬으로써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nilbo.com

눈높이 맞춤 자원순환교실 운영 광산구, 자원 재활용 의식 고취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자원절약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원순환해설사 94명을 양성, 매년 자원순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순환해설사가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아동, 청소년, 일반시민과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법을 교육한다.

올해는 수요자 입맛에 맞게 교육 내용을 세분화한다.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을 구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교육한다. 또 최근 확산하고 있는 쓰레기 없애기(제로 웨이스트) 과정을 추가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교육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65개 기관, 1만4115명이다. 광산구는 자원순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로 희망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에너지 전환' 정책간담회 열어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한운희 의원(정의당)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첨단·비아·수완 에너지전환마을, 반짝반짝·지구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에너지센터 등 지역 에너지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광주에서는 광주시와 동구가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조례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논의 내용은 에너지전환마을과 같은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사업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운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사업이 확산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광산구 탄소중립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동구, 저소득층서 일반인까지

광주 동구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는 당초 저소득층에만 공영장례를 지원해왔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앞장서게 됐다.

이를 위해 관내에 거주하다 사망한 일반 무연고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분향소 설치 등 무연고자에 대한 추모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동시에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매년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발생 건수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산구, 쌍암근린공원 '힐링공간' 탈바꿈

광주 광산구가 쌍암근린공원의 수변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개천(계류)과 부유 분수 등이 있는 수변 쉼터를 조성했다. 유출 지하수를 공원 용수로 유입해 쌍암제 수질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광주 광산구 제공

남구, 전북 순창군과 행정·경제 교류 나서

자매결연 협약, 협력사업 본격화 지역사회 관심사 공동 대응키로

광주 남구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에 나선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순창군 영상회의실에서 양 도시간 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김병내 구청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 등 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남구와 순창군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



라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와 우의를 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다채로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행정과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민간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

할 계획이다.

김병내 청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남구와 순창군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자매도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순창군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광주 남구와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동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오늘이 자리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북구 이색 독서체험 '도서관 북스테이' 운영

인근 공원에 휴식·독서공간 제공

광주 북구는 10월까지 야외에서 즐기는 이색 독서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북스테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서관 북스테이는 책과 함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독서 체험 공간과 유익한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꾸러미를 제공해 주민의 독서 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북스테이는 △북스테이 체험 △북스테이 꾸러미 대여 등 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북스테이 체험은 도서관 인근 공원 등에 텐트, 돗자리, 캠핑 의자 등으로 조성한 휴식 및 독서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진행된다.

북스테이 꾸러미 대여는 △북구 이달의 읽을 책 △독서 필사 세트 △종이접기 세트 △돗자리 △초등학생 활동지 등으로 구성된 독서 소품 꾸러미를 지역 주민

에게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일곡도서관을 시작으로 6월 운암도서관, 9월 양산도서관, 10월 신용도서관 순으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북구청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서구, 동장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의 기능·동장 현장활동 강조

광주 서구는 동(洞)이 중심이 되는 '내 곁에 생활정부'의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민선8기 동장 업무 매뉴얼(지침)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동의 3대 운영 방향(친절, 소통, BI)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거점동장-연계동장의 역할과 책임 등이 담겼다. 행정복지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제반 사항만을 위주로 다뤘던 기존 지침과는 달리, 동의 기능과 동장의 현장 활동, 직원 소통 등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산하마을자치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추진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치 분야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각종 공모사업 등이,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민관 협력과 자원연계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민선 8기 동장 업무매뉴얼은 향후 18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북구-VD컴퍼니, 투자협약

광주 북구가 지난달 30일 서빙 로봇 등 AI(인공지능) 스마트 상점을 보급하는 기업 VD컴퍼니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투자 협약'을 했다.

협약은 VD컴퍼니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테이블 오더(주문), 서빙 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VD컴퍼니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북구에 'VD컴퍼니 광주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북구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